



전통기락·신명이 어우러진 소리한마당

장사익 소리관 **우리 대한민국**



장사익 씨는 이번 공연에서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열정과 혼을 담아낼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봉화 청량사 산사 음악회 연주 모습.

한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떨쳐 낼 신명나는 소리 한마당이 벌어진다. 소리꾼 장사익씨가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장사익 소리관 '우리 대한민국'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일년에 한번 건우직녀가 품결처럼 만나는 칠월칠석에 8·15 광복절의 한화를 더하고, 월드컵으로 융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민족의 힘을 한여름 신명에 얹어 노래하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세계를 감동시켰던 대한민국의 열정과 혼, 그것을 소리로 담아내겠다는 것. 그래서 공연제

목도 '우리 대한민국'이다. 장씨는 그동안 자신의 정기공연 외에도 불교인권문화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주 4·3 위령 음악제, 백범 추모공연 통일음악회, 북한 어린이들이 기금마련 공연, 성폭력 상담소 후원의 밤 등에서 민중의 아픔을 노래로 위로하고 경북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와 충북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등에서는 음성공양으로 불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등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해왔다. 이번 공연에서 장씨는 자신이 직접 곡을 만든 새 노래 '여행' '낙화' '꿈꾸는 세상' 등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70인조로 구성된 서울필하모닉 오케

광복절 환희·월드컵 열정-혼 표출
자신이 쓴 곡 '여행'·'낙화' 등도 선보

스트라와 창작예술집단 '세걸들' 대표인 김규형씨의 모듬북, 타악그룹 노를마치의 사물까지 어우러진 공연은 우리 전통기락과 구성지게 꾸러지는 장씨의 노래, 토종의 신명이 살아 숨쉬는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02336-0514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ist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오랫동안 한학을 공부한 어느 분의 특강 모임에 참석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소동파의 <적벽부>를 한 번 읊조리겠다고 했다. 옛날 선비들은 여름날 모여 있으면, 으레 더위를 쫓는 데 좋은 <적벽부>를 함께 암송했다고 한다. 높았다 낮아졌다 하며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낭랑하게 퍼지는 음성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동양화 속으로 들어가, 높은 절벽 아래 물과 하늘의 하얀 여백에서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배 안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고문진>을 꺼내 한문과 우리말 번역을 대조하며 다시 한 번 <적벽부>를 읽어보았다. 불교 및 백자의 산문시를 통해 왜소한 인간 존재가 대우주를 느낄 때의 경이로움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무한한 향연을 잘 표현한 명문이었다.

소동파(東坡 蘇軾, 1036-1101)는 황제에게 직간한 필화사건으로 나이 40이 넘어 유배를 떠나게 되자, 인생을 숙고하고 불교에 귀의한다. 그는 안국사(安國寺)에서 선(禪) 수행에 힘써, 불교에 기초한 인생관을 확립했다. 그는 나이 47세 되던 해 음력 7월 16일에 유배지 황주의 적벽 아래 강으로 친구와 함께 밤배놀이(夜遊)에 나섰다. 드넓은 강 위를 떠돌며 동파가 노래를 부르자, 친구는 불소를 꺼내 불며 화답했다. 이어 친구가 옛날 적벽대전에서 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조조도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기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읊조릴 적에, 동

소동파의 적벽가

유배지 황주 적벽강에서 친구와 밤배놀이 즐기며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해

파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만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 단 한 순간도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란 없이 무상(無常)하네. 그렇지만 불변의 견지에서 사물을 살펴 보면, 물결과 아귀가 영원불멸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네. (...) 강 위로 불어오는 이 산들바람과 산봉우리 위에 솟아 있는 저 밝은 달은 누구나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들과 다감한 존재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놓여 있어 우리 눈과 마주치면 곧 색깔을 띠고, 우리 귀에 부딪치면 곧 소리를 들려주니, 우리가 무상으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조물주께서 무진장한 선물을 내려 향연을 베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을 듣고 나자 친구는 미소를 띠었다. 그들은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돌아떨어져 먼동이 터 오는 줄도 모르고 잤다. <적벽부>를 유달리 좋아하는 근대중국의 문호 임어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관은 곧 <적벽부>라는 한 편의 산수화에 기초하고 있다. 인생의 속박이 나 번거로운 모두가 이 공활한 세계를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인류가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려면, 먼저 우주의 장려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임어당이 쓴 소동파 전기 <쾌활한 천재>에 휘하가 보니, 어느새 먼동이 터 온다. 열대야의 밤에는 독서 삼매에 빠져 선현들과 교감을 나누는 정신적 피서가 최고인 것 같다.

■문학평론가

호·재·의·전·사·(三)·題

作陶 50년 신정희 도예展 불일미술관

조선 파사발의 맥을 잇는 신정희 씨가 50년 도예 인생을 회고하는 기념 도예전을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갖는다. "우리 밖에 못 만드는 사발, 이것이 바로 나의 종교이자 깨달음 그 자체"라고 말하는 신 씨는 50년을 하루같이 그릇 만드는 일을 수행 삼아 정진하며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우리 그릇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었다.

막사밭은 조선 서민들이 쓰던 사발을 이르는데, 고려청자와 달리 투박하고 소박한 멋을 지녔다. 신 씨는 이번 전시에서 도예의 업을 이어 받고 있는 장남 신한근씨와 함께 우리 사발과 백자, 철화, 진사 등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8월 11일까지. 027733-5322



신정희 작 '진주사발'

'...3인 판화展' 온라인 전시 8월 20일까지



'이철수 홍성담·정비파 3인 판화展'이 24일-29일 문예진흥원 전시실에 이어, 8월 20일까지 온라인(www.historyfund.com) 전시로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이 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 이철수 씨가 '작은 물가에서', '큰가족' 등 27점을, 홍성담 씨는 '5월' 판화 시리즈를 포함 12점, 정비파 씨는 '남산불국토전도'(위 사진), 운주사 천불천탑도 등 총 18점을 선보인다. 02969-0226

마음·붓질의 자유로움展 해인사서

경남 합천 해인사 구공루에서 8월 1일-20일까지 열리는 김양수 씨의 '마음의 자유로움, 붓질의 자유로움'전은 질박한 수묵화의 절제미와 여백의 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대학에서 유학한 김씨는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40여점의 모든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아 관람자들이 제목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을 단아하고 절제된 여백의 미를 통해 표현하고, 이를 저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유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02487-7759



김양수 작 '무제(無題)'

만해 한용운 한시 12편 발굴

권영민 교수, 문학사상 8월호에 전문 공개

간해 한용운(1879-1944)이 1909년 일본 청년 승려들의 모임인 화용회(和融會) 기관지 '화용지(和融誌)'에 12편의 한시를 게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권영민 서울대 교수(국문학)는 이 사실을 확인, 문학사상 8월호에 '한

'사랑(思郞)'과 '산사독야(山寺獨夜)' 등 모두 12편의 한시를 발표했다. '차가운 등불삼지 자르지 않아 붉은 불빛 이어지는데/ 온갖 마음 가리얏아 혼을 보지 못하겠네/ 매화가 꿈길에 들어 학으로 변하더니/ 옷 싹을 잡아끌며 고향을 얘기해주네' (사랑, 7언 절구) 권 교수는 '만해의 한시는 타국에서 느낀 외로움, 기술어가는 조국에 대한 슬픔 등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게 특색'이라면서 '형식은 한시이지만 시의 주제는 후기의 한글 시와 맥이 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기 교수 찬불가 앨범 '七寶心' 출시...21곡 담겨



정부기 교수 찬불가 앨범 '七寶心' 출시...21곡 담겨

성악가 박진희씨가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의 창작 찬불가를 모아 '정부기 교수의 찬불가 노래-칠보심(七寶心)'을 발표했다. 앨범 이름인 칠보심(七寶心)은 박씨의 불명(佛名)이다. 총 21곡이 담긴 이 앨범은 과천행배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반주에 전통 국악기를 적절히 사용해 찬불가의 웅장함과 한국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한다. 박씨는 세종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세종오케라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서울 능인선원 일요법회 찬불가를 지도하고 있다.

전화 02588-0833 팩스 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담 스님의 딸, 성철 스님의 제자인 묘엄 스님 이야기

회색 교무진

불교서점 어시어문 베스트셀러 1위

묘엄 스님 구슬·윤창명 역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사리!

청담의 딸, 성철의 제자 세속의 잣대로 보면 왕대밭 소속이다. 그러나 출가 수행이 배경이나 그늘로 성취할 수 있는 여정이었는가? 아버지와 스승의 이름은 맹맹한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벽이다. 노비구니 스님이 조곤조곤 구술한 극적인 일화와 수행의 역경을 겪조 있게 꾸민 원로 방송작가 윤창명 선생의 솜씨도 돋보인다. 잔잔한 웃음이 일고 가끔씩은 아찔한 감동이 목구멍을 막는다. 조선일보 속인들이 잘 모르는 절간 생활의 면모, 그 가운데 언뜻 비치는 사람살이의 푸근한 냄새,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 등이 담담한 필치로 그려진다. 한국일보 묘엄 스님은 14살에 청담 스님에게 보내져 청담의 절친한 도반이었던, 진종정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숭가했다. 그 뒤 함곡, 운비, 경봉, 동산, 자운 스님 등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들의 제리와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아 이 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엔 근대 고승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한겨레신문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비구니 스님이 비진도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산문집.

해인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